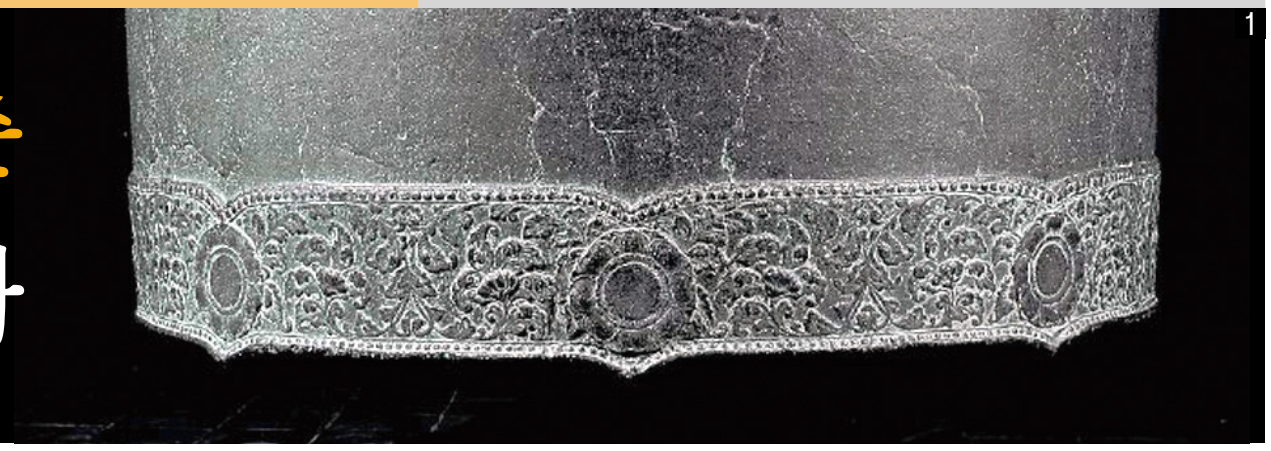
혼란 정국 속 춘래불사춘
국태민안 종소리 그립구나


1

13부 스토리로 만나는 경북의 문화유산 〈6〉 성덕대왕 신종

봄꽃은 허드레지게 피었어도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 요즈음이다. 봄은 왔지만 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식상한 문구가 된지 오래이지만 죽은 나무에서 꽃 핀 듯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로 말미암은 방방곡곡의 아우성이 죽은 말을 되살려낸 이유이자 근거이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된 혼신의 울력으로 종을 만들고, 영혼 깊은 곳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깨달음을 얻던 신라적 사람들의 그날이 부럽다.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을 찾았다.

봉덕사종, 혹은 에밀레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은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이다. 1962년 12월20일 국보 29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3.75m, 지름 2.27m, 두께 11~25cm 무게 18.9t의 거대한 종이다. 범종 몸체에 새긴 한림랑(翰林郞) 김필오가 왕명을 받들어 지었다는 명문(銘文)은 세월을 거슬러 아득한 후대까지 빛이 바래지 않은 명문(名文)중의 명문이다. 명문에는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고, 종소리를 통해서 그 공덕이 널리, 그리고 영원히 나라 백성들에게 흘러들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발원이 담겨 있다. 국태민안! 이보다 더 소중한 보편적 가치가 어디 있을까. 두고두고 읽어 가슴에 새겨둘만한 몇 부분을 옮긴다. 오늘의 난세를 비추는 반성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신라 경덕왕~혜공왕

- 효성스런 후계자인 경덕대왕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큰 왕업을 이어 지켜 뭇 정사를 잘 보살폈으나,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일어났으며 거듭 아버지를 잃어 텅 빈 대궐을 대할 때마다 슬픔이 더하였으니, 조상을 생각하는 정은 점점 슬퍼지고 명복을 빌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여졌다. 삼가 구리 12만 근을 희사하여 1장(丈)이나 되는 종 1구를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문득 세상을 떠나셨다.

- 신해년(771) 12월이었다. 이때 해와 달이 교대로 빛나고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고 바람은 따뜻하고 하늘은 고요한데, 신성한 그릇(鍾)이 완성되었다. 형상은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용의 소리 같았다. 위로는 유정천(有頂天)까지 꿰뚫고 아래로는 귀허(歸墟)의 밑바닥까지 통하였다. 그것을 본 자는 기이하다고 칭송하고 그것을 들은 자는 복을 받았다.

- 원컨대 이 오묘한 인연으로 존엄한 영령을 받들어 도와서 두루 들리는 맑은 소리를 듣고 말을 초월한 법연에 올라감에 과거·현재·미래를 꿰뚫는 뛰어난 마음에 계합하고 일승의 참된 경계에 머물게 하며 나아가 왕손들이 금으로 된 가지처럼 영원히 번성하고 나라의 왕업이 철위산(鐵圍山)처럼 더욱 번창하며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바다에서 함께 파도치다가 같이 세속을 벗어나서 아울러 깨달음의 길에 오르소서.

신라 제35대 경덕왕은 부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종을 만들고자 했다. 종의 제작은 쉽지 않아서 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경덕왕은 승하했다. 경덕왕의 뒤를 이은 혜공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종을 만들도록 주조장 '아도'에게 책임을 맡겼다. 아도는 밤낮없이 연구하며 최적의 금속 비율을 찾고, 온도와 주조법을 개선했다. 그러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혜공왕 7년 마침내 산이 솟은 듯한 형상의 종이 용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복을 받는 신선한 그릇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세상의 온갖 지혜를 한데 모아야 했다. 어린 아이를 끓는 쇳물에 넣어 비로소 종이 완성되었다는 인신공양 전설도 그 중의 하나이다. 성덕대왕신종이 내는 음색의 특성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맥놀이 현상'이다. 종 내부와 외부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청동의 비율과 제작 기술에서 기인한 맥놀이 현상에 의해, 종을 치면 그 은은한 여운이 끊어질 듯 작아지다가 다시 이어지곤 한다. 길게는 3분까지 이어지는 저음역의 여운은 에밀레, 에밀레, 어머니를 부르는 듯한 애절한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이는 잘 알려진 인신공양 전설의 근거이기도 하다.


2

종 맨 위 울림 돕는 '음통' 존재
한국 동종만 있는 독특한 구조
고리역할 용뉴는 용머리 모양
왕의 권위와 신성 상징해 눈길

몸체에는 넓은 띠 속 꽃무늬도
화려한 문양과 사실적 조각법
신라의 금속기술·예술성 대표
김필오, 왕명 숭배한 명문 새겨
국태민안 지속 소망 발원 담아

◆조화롭고 아름다운 종

성덕대왕신종은 전체적인 비례가 매우 조화로운 크고 아름다운 종이란 평가이다.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음통(音筒)이 있다. 한국의 동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음통은 종소리를 더욱 깊고 웅장하게 만들어 준다.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龍鈕)는 용머리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두 마리의 용이 얽혀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듯한 모습으로, 왕의 권위와 신성을 상징한다. 종 몸체에는 상하에 넓은 띠를 둘러 그 안에 꽃무늬를 새겨 넣었다. 종의 어깨 밑으로는 4곳에 연꽃 모양으로 돌출된 9개의 유두를 사각형의 유곽이 둘러싸고 있다. 유곽 아래로 2쌍의 비천상이 있고, 그 사이에는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가 연꽃 모양으로 마련되어 있다. 통일신라 예술이 전성기를 이룰 때 만들어진 종으로, 화려한 문양과 사실적인 조각수법은 신라의 뛰어난 금속 기술과 예술성을 대표할 만하다. 다시 몸체에 새긴 명문 한 구절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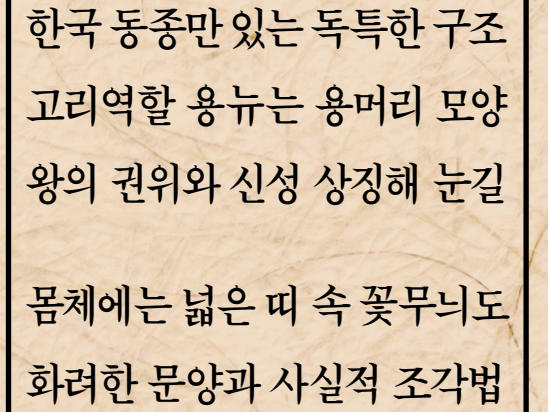
- 무릇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바깥을 포함하므로 보아도 그 근원을 볼 수가 없으며, 큰 소리는 천지 사이에 진동하므로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가 없다. 대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능히 울리되 그 반향이 다함이 없고, 무거워서 굴리기 어렵되 그 몸체가 주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왕자의 으뜸가는 공적을 그 위에 새기니, 중생들이 괴로움을 떠나는 것도 그 속에 있다. 엎드려 생각컨대 성덕대왕께서는 덕은 산하처럼 드높았고 명성은 해와 달처럼 높이 걸렸으며,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풍속을 어루만지고 예절과 음악을 받들어 풍속을 관찰하셨다. 들에서는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썼으며, 시장에서는 남용되는 물건이 없었다. 아들의 죽음에 상심하지 않고 나이 많은 이의 훈계에 마음을 두었다. 40여 년 동안 나라에 임하여 정사에 힘써서 한 해라도 전쟁으로 백성을 놀라게 한 적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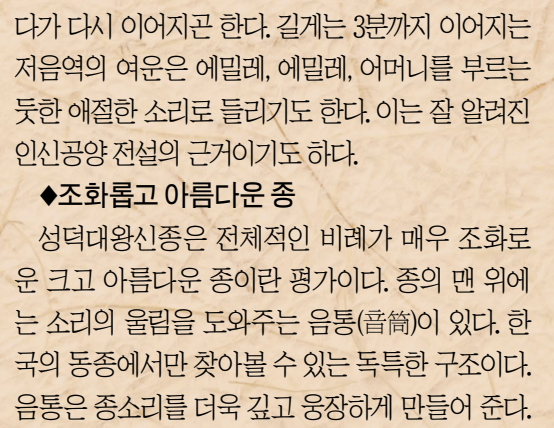
'백성을 놀라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글귀에 밑줄을 그으며 헌법재판관의 긴장된 목소리를 떠올린다"..... 치받는 목소리가 엇진 맥놀이 현상처럼 오래 울려 난청(難聽)의 봄날이 괴롭다. 난청은 난세의 심리적 현상이다. 결단코 백성을 놀라게 하지 않을 국태민안의 종소리가 그립다.

한국 대표 범종 '성덕대왕 신종'
1962년 12월 국보 29호로 지정
높이 3.75m·무게 18.9t 눈길

뭇 정사 잘 보살폈던 경덕대왕
1장 종 1구 주조 전에 세상 떠나
혜공왕, 아버지의 유지 받들어
주조장 아도 종 제작 책임 맡겨

수많은 시행착오 끝 그릇 완성
서로 다른 주파수 계속 반복돼
길게 3분까지 이어지는 저음역
어머니 부르는 듯 애절한 소리


3


4

1 성덕대왕신종 하대. 2 성덕대왕신종은 통일신라시대 771년(혜공왕 7) 제작된 범종으로 국보 제29호이다.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완성은 손자인 혜공왕 때 이루어졌다. 전근대에 만들어 국내에 실물이 현존하는 범종 중 가장 크며 그 높이는 3.75m, 지름은 2.27m, 두께는 11~25cm이다. 무게는 18.9톤이다. 화려한 문양과 사실적인 비천상의 표현 등 완성도 높은 전체 문양의 배치와 조화로운 모습 등은 왕실 발원으로 제작된 종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3 성덕대왕신종 비천. 4 성덕대왕신종 용뉴.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강현국 시인